은행주 랠리. 끝이 아닌 진행형

은행 Weekly | 2026.2.9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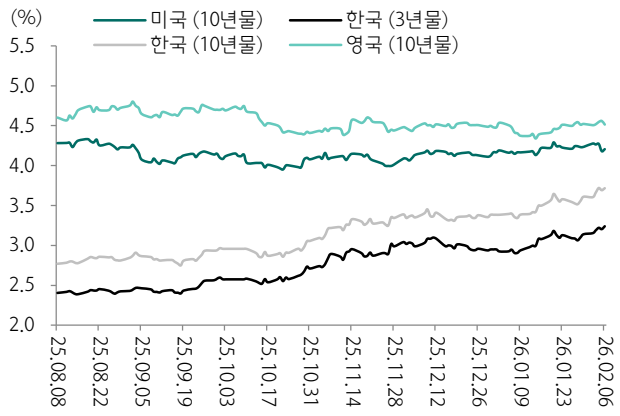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주담대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바 있는데, 주담대를 더 조이기 위해 이를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부동산 분야로 쏠린 대출을 줄이고 첨단전략기술 등 생산 금융 분야로 자본을 이동시키겠다는 취지
- 이찬진 금감원장이 2조원 규모의 홍콩 ELS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과징금으로 인해 은행의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재심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유지하고 관철할 것이라 밝힘
- 홍콩 ELS 과징금을 사전 통지받은 은행들이 사전 통지 금액의 20~30%만 지난해 경영실적에서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파악. 향후 과징금 확정 규모가 절반 이하로 경감되거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
-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시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금융당국도 DSR 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 이자 부담이 큰 고액의 전세대출과 규제 사각지대인 1억원 이하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지 주목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2월 6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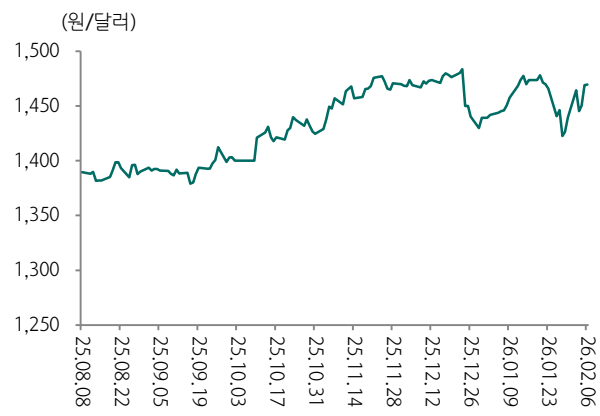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2025~)	Weekly Net Buy (십억원)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90	33.8	5.6		4,203,477.7	-2.6	12.5	28.7	112.1	614.0	118.7	-11,120.0	9,586.0
은행	0.72	8.31	8.85	0.63	201,513.6	10.3	16.5	22.0	88.8	85.1	72.4	91.1	-133.5
KB 금융	0.91	9.53	9.73	0.75	55,666.6	10.4	18.1	20.7	80.1	48.7	38.5	15.0	-59.6
신한지주	0.79	9.81	8.89	0.65	45,442.3	11.0	16.3	20.9	96.4	-17.0	-12.9	86.1	-26.0
우리금융	0.66	7.58	8.96	0.56	23,820.8	7.3	14.7	26.3	111.1	8.6	16.6	-19.3	11.6
하나금융	0.70	7.86	9.17	0.61	31,896.1	14.5	20.8	24.6	101.8	19.9	20.5	-0.4	-19.4
기업은행	0.51	6.77	7.70	0.56	18,340.8	3.8	9.8	16.8	60.5	-1.4	-1.8	2.4	-0.4
BNK 금융	0.54	7.17	7.50	0.52	5,741.1	11.4	16.7	25.9	78.9	21.1	6.3	-0.3	-14.3
iM 금융	0.45	6.40	7.18	0.44	2,810.9	12.9	13.1	29.3	113.9	17.1	5.9	4.9	-15.4
JB 금융	0.88	7.58	12.19	1.03	5,392.7	12.9	12.3	23.2	74.4	-12.0	-0.7	2.8	-9.9
카카오뱅크	1.83	25.82	7.23	0.69	12,402.3	13.5	15.0	20.6	23.5	11.6	8.0	48.4	-59.2
삼성카드	0.77	10.60	7.45	2.09	6,824.1	3.7	9.1	15.3	49.3	1.0	-2.2	3.6	-3.9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10.3% 급등해 KOSPI 하락률 2.6%를 13%p 초과상승. 4분기 실적이 과징금 부과 등의 일회성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했고, 특히 우려와 달리 은행지주사 CET 1 비율 하락 폭이 소폭에 그치고, 기말배당 증가와 상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확대 발표 등으로 투자심리가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 그동안 KOSPI 급등으로 인해 주가 상승 폭이 컸던 주도업종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가운데 소외주였던 은행주로 순환매가 발생한 점도 주요 배경. 외국인은 지난 한주간 KOSPI를 11조원 넘게 대량 순매도하는 와중에도 은행주는 900억원 넘게 순매수했음.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비트코인도 급락하면서 위험회피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1%로 한주간 3bp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50%로 한주동안 2bp 하락. 국내 국채금리는 상승세 지속.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 현상 외에도 국고채 입찰 예정에 따른 수급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 10년물 국채금리는 3.71%로 한주간 10bp 추가 상승했고, 3년물은 3.23%로 9bp 상승. 한편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은 전주에는 다시 상승 반전. AI 거품론으로 위험회피 분위기가 나타나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 외국인이 KOSPI를 대량 순매도하고 있는 점도 한 요인. 결국 환율은 1,463.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19.5원 상승.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를 11.2조원 순매도한 가운데 은행주는 910억원을 순매수했고,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6,140억원과 850억원 순매수. 국내 기관과 외국인 은행주 동반 순매수 진행 중
- 전주 특징주는 하나금융. 실적발표 당일 약세를 보였던 주가는 전주에는 14.5% 급등해 한주동안 주가 상승 폭이 가장 컸음. 자사주 공시 규모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면서 실적발표일 약세분까지 모두 만회한 듯. 반면 기업은행은 실적과 주주환원에서 이렇다할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가 상승 폭이 3.8%에 그쳐 가장 부진했음. 한편 카카오뱅크는 4분기 NIM 큰폭 상승 반전과 1분기 슈퍼뱅크 관련 대규모 평가익 예정, 여기에 캐피탈사 인수 피력 등의 inorganic 성장 전략과 스테이블코인 기대감까지 부각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대폭 확대. 금요일에는 하락 전환했지만 한주간 주가 상승 폭이 13.5%에 달했음
- 은행 4분기 순익은 YoY 8.1% 증가한 2.8조원으로 과징금으로 인해 낮아진 컨센서스를 상회. CET 1 비율이 기대보다 잘 관리되면서 상반기 주주환원 발표 규모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했음. 특히 4분기 DPS가 예상보다도 더 늘어났으며, 2027년부터 비과세배당 실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배당대상기업 요건 계속 충족을 위해 2026년에도 2025년대비 총배당을 10%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는 은행들이 대다수였음. 이는 주가 상승에 따른 배당수익률 저하 현상을 완화시켜 배당 관점의 투자매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 고배당펀드 및 고배당 ETF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기대 배당수익률이 일정수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
- 4분기 NIM 상승 폭이 소폭 더 커졌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 소멸 및 국내 국채금리 상승 분위기로 인해 은행들은 올해 NIM 전망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 대손비용도 PF 추가 충당 요인들이 소멸되면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 따라서 2026년에도 상당폭 증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하반기에만 해도 2026년 중 감익 우려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가이던스가 크게 개선된 것임. 또한 은행들의 밸류업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주환원율에서 ROE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본원적인 ROE 개선을 통해 주주환원율을 추가 상향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은행들의 밸류업 정책이 ROE 개선 수준과 CET 1 비율을 연계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
- 지난주의 은행주 급등으로 2025 BPS 기준 은행 평균 PBR이 0.72배 수준까지 상승. 다만 2026F BPS 기준 PBR은 0.66배에 불과하며 우리가 1차적으로 targeting 하고 있는 PBR 0.8~0.9배에는 아직 크게 못미치는 수준. 물론 기존 주도업종들의 재상승 여부에 따라 은행주 상승 속도가 조절될 개연성은 있지만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음.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지만 시중금리 상승과 올해에도 양호할 은행 펀더멘털, 주주환원율 추가 상승에 대한 신뢰도 제고, 상법개정안과 원화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등의 정책 모멘텀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은행주 비중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 외국인의 은행주 매수세가 좀처럼 약화되지 않고 있어 우호적인 수급 여건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178,000원), 하나금융(매수/TP 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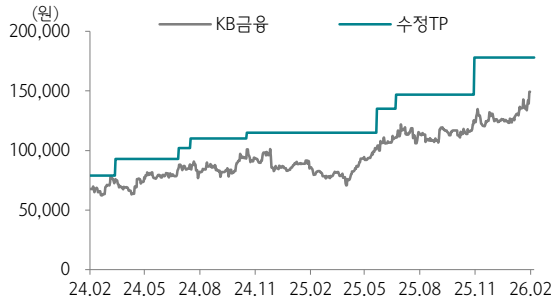
- KB금융은 4분기에도 강력한 수익성을 보여줌. 핵심이익인 수수료이익의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양호한 CET 1 비율로 2026년 2.8조원의 주주환원 재원 확보 등 모든 부문이 긍정적. 과징금 우려도 해소단계인만큼 업종내 선도주의 지위 보일 것
- 하나금융은 CET 1 비율이 추가 상승해 신한지주를 상회. 현 PBR 0.70배로 KB금융·신한지주와의 gap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가격 매력 부각 가능. 기존 업종내 주도주 컨셉의 부활이 예상되며 2월말로 예상되는 밸류업 업그레이드 계획도 기대

Global Peer Table (2026년 2월 6일 종가 기준)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2025~)
KOSPI	1.90	33.8	5.6		4,203,477.7	-2.6	12.5	28.7	112.1
은행	0.72	8.3	8.8	0.63	201,513.6	10.3	16.5	22.0	88.8
KB금융	0.91	9.5	9.7	0.75	55,666.6	10.4	18.1	20.7	80.1
신한지주	0.79	9.8	8.9	0.65	45,442.3	11.0	16.3	20.9	96.4
우리금융	0.66	7.6	9.0	0.56	23,820.8	7.3	14.7	26.3	111.1
하나금융	0.70	7.9	9.2	0.61	31,896.1	14.5	20.8	24.6	101.8
기업은행	0.51	6.8	7.7	0.56	18,340.8	3.8	9.8	16.8	60.5
BNK금융	0.54	7.2	7.5	0.52	5,741.1	11.4	16.7	25.9	78.9
iM금융	0.45	6.4	7.2	0.44	2,810.9	12.9	13.1	29.3	113.9
JB금융	0.88	7.6	12.2	1.03	5,392.7	12.9	12.3	23.2	74.4
카카오뱅크	1.83	25.8	7.2	0.69	12,402.3	13.5	15.0	20.6	23.5
삼성카드	0.77	10.6	7.4	2.09	6,824.1	3.7	9.1	15.3	49.3
미국									
S&P 500	5.38	26.9	18.8	4.66	61,673.6	-0.1	-0.1	3.5	16.3
은행	1.63	13.7	11.8	1.06	2,264.6	6.2	-0.1	11.3	25.1
Wells Fargo	1.78	15.0	12.3	1.06	295.0	4.3	-2.0	10.3	17.3
JPM	2.55	16.0	16.6	1.30	869.3	5.4	-3.6	3.3	17.0
CITI	1.12	16.3	7.2	0.57	219.5	6.6	0.7	22.3	55.3
BOA	1.48	14.9	10.5	0.89	412.8	6.3	-1.3	6.6	22.0
US Bancorp	1.64	13.3	12.7	1.09	94.3	8.2	8.2	30.8	42.2
PNC	1.76	15.1	12.2	1.15	95.1	8.6	12.1	33.6	37.0
BB&T	1.18	14.1	8.6	0.98	71.4	8.5	9.0	28.3	30.5
중국									
상해A주지수	1.48	15.6	9.6	1.42	64,402.3	-1.2	-0.3	1.9	25.6
은행	0.69	7.2	9.6	0.72	11,718.5	0.8	-6.1	-7.6	-2.1
공상은행	0.66	7.2	9.3	0.72	2,457.4	0.1	-6.9	-8.6	0.1
건설은행	0.67	6.9	9.9	0.80	1,888.2	1.4	-3.5	-4.4	1.8
농업은행	0.84	8.6	9.8	0.63	2,279.4	-0.7	-11.8	-17.0	19.7
중국은행	0.65	7.3	9.0	0.66	1,622.4	-0.4	-4.3	-3.7	-5.3
교통은행	0.52	6.2	8.3	0.62	573.1	1.4	-6.5	-6.6	-13.2
초상은행	0.88	6.8	13.1	1.19	1,017.3	2.4	-4.9	-4.0	-7.4
일본									
NIKKEI	2.62	21.8	11.5	3.78	935,235.9	1.7	3.3	6.7	47.7
은행	1.30	14.9	8.7	0.46	123,725.3	7.6	15.0	35.8	88.3
Mitsubishi UHF	1.57	15.3	10.6	0.63	35,027.5	5.2	12.4	26.7	72.8
Sumitomo Mitsui Financial	1.45	14.4	10.6	0.62	22,797.3	8.0	10.9	40.6	75.0
Mizuho	1.61	15.3	11.2	0.44	18,292.9	8.3	19.0	43.2	105.5
Sumitomo Mitsui Trust	1.15	12.7	9.2	0.40	3,815.4	5.7	8.1	26.5	54.6
유럽									
MSCI Europe	2.37	17.6	12.6	1.56	15,001.5	0.9	1.8	8.5	17.0
은행	1.43	11.5	12.3	0.66	1,950.1	-0.1	3.5	18.1	60.5
HSBC	1.76	12.6	12.7	0.74	224.3	1.6	7.3	19.9	64.1
Santander	1.57	12.1	13.1	0.75	156.6	-1.1	3.4	19.2	98.7
BNP Paribas	0.88	9.1	9.7	0.41	102.6	2.2	15.7	42.6	49.5
Credit Agricole	0.76	8.3	9.4	0.26	54.1	-2.2	1.7	14.2	19.8
Deutsche	0.92	10.3	9.0	0.47	60.1	-5.0	-5.7	0.4	64.4
Unicredit	1.77	11.0	16.7	1.24	115.2	0.7	4.1	19.1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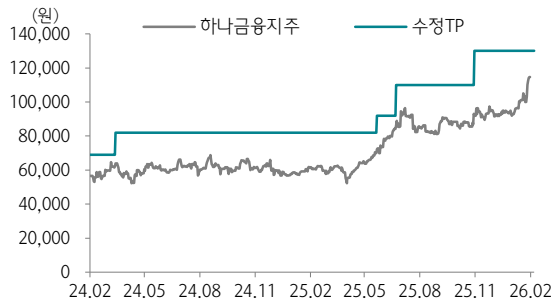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78,000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23.9.11	BUY	68,000	-20.92%	-2.50%

하나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30,000		
25.6.30	BUY	110,000	-20.85%	-12.27%
25.5.29	BUY	92,000	-14.77%	-8.48%
24.3.21	BUY	82,000	-25.94%	-16.10%
24.2.5	BUY	69,000	-15.85%	-6.38%
24.2.1	BUY	58,000	-3.62%	-3.62%
23.4.5	BUY	56,000	-26.55%	-14.6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2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2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2%	2.78%	0.00%	100%

* 기준일: 2026년 2월 6일